

< 2015년 4월 교생실습 소감문 >

동양중학교 2학년

과목: 도덕

사범대학교 학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육 실습의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학도로서 나는 흑석동에 위치한 동양중학교에 교생 실습을 신청하였다. 내가 복수 전공을 경영학으로 하는 바람에, 과목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학교에서 도덕으로 배정해주었다. 처음에는 내가 전공이 아닌 도덕을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미리 교과서도 찾아보고 자습서도 찾아보면서 미리 준비를 많이 해간 탓에 수업을 하는 것 자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수업보다도 오히려 학교에서 한 달간 학생들과 현직 교사들과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더 많았다.

남자 중학교 2학년 담임을 맡게 되어 '중2 병'이니, '사춘기'니 하는 것들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앞섰다. 흔히 있는 학교 폭력 문제나, 교권 추락의 문제 역시 무서웠고, 남학생들의 성적인 농담이나 성추행과 같은 문제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이러한 고민들이 정말 쓸데 없는 고민이었다는 것을 절절히 느꼈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지 벌써 10년 정도 지났지만, 10년 전의 중학생이나 현재의 중학생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았다. 여전히 학생들은 게임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학생들이었다. 교생의 경험이 없는 나를 굉장히 좋아해주었고, 이해해주었다. 교생을 한 지 삼일 차부터 학생들과 1대 1 상담을 진행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아 주어서 굉장히 놀랐다.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해주는 학생들도 많았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 주어서 고마웠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의 고민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었다는 점이 감사했다.

나는 2 차시 수업을 총 여섯 반에 진행했다. 나는 이전에 학원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보고, 과외 경험도 많아서 수업을 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았지만, 학원에서 강의하던 것과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수업 중에 사용하는 언어나, 예시도 많이 달랐고, 학생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에 집중력을 다시 바로 잡는 방법도 달랐다. 한 차시 당 여섯 번 수업을 하고 날 때마다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해주셨다. 주로 수업 중 사용하는 예시에 관한 충고가 많았다.

교생 마지막 주에 내가 조부상을 당해 마지막 주차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쉽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간이었지만, 학생들과 마지막 주차까지 수업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도 아쉬웠고, 학생 상담도 교생 마지막 날까지 몰아서 급하게 진행했던 것들이 마음에 아직도 걸린다. 학생들과 지금도 이 메일을 주고 받고 있을 정도로 학생들과 그 짧은 시간 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아직은 들지 않았지만, 교직에 대한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던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과 지내는 것, 교사 집단에서 생활하는 것, 또

학교의 행정 업무를 보는 것 등 교사라는 직업이 단순히 학생들에게 수업을 잘 해야 하는 직업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새삼스럽게, 교사들이 굉장해 보였고 더 존경하게 되었다.

교생 실습이 4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교생을 가기 전에는 사범대 학생들 중에서 교직을 생각하는 학생에게는 4주라는 시간이 너무 짧고, 교직을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4주가 너무 길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교직을 생각하지 않던 나에게도 4주는 돈을 주고도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로서,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없을 기회를 내가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자가 피드백을 주는 중이다. 또 이와 비슷한 경험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손 발을 걷고 나설 것이다.